

이제 고전 문법 두 번째 시간이에요.

21번부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부분은 쉽죠.

지금 보시면, 보기 1 풀이에 나와 있네요.

ㅇ을 순음아래 이어 쓰면 순경음.

그러니까 순경음 찾으라고 이야기고.

다음에 (나)에는 초성 글자를 합하여 사용할 때는

나란히 쓰라,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나란히 쓰기.

즉 병서법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게 정답 5번 골라주시고요.

다음에 22번 가보죠.

㉠부터 ㉣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을 설명했다.

옳지 않은 것.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좀 지겹다.

그러니까 1번은 ㅂ계열 이야기하는 거였고요.

2번에 두음법칙이 적용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니△ㄱ쓰다라고 하는 것을 현대 국어로 이어쓰다로 바꾼다면

ㄴ음이 없어지는 거니까

오히려 2번이 틀렸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에 아래아 사용된 거 확인할 수 있고

다음에 ㄹ에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고 있다.

그러면 이건 약간 좀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뭐냐하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어울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애가 지금 모음조화가 잘 지켜지고 있었다는 이야기했는데

이 단어가 그러면 원형이 뭐냐, 라고 하는 그런 고민할 수 있어요.

어울다에 우에 어가 더해지는 구성인가요,

아니면 어울우다, 라고 하는 단어에 어가 붙어있는 구성인가요?

이건 그렇게 고민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현대어 풀이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아올러.

즉 아우르다, 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인데

옛날 형태가 애였을 가능성은 좀 없어요.

왜 그리냐면, 만약에 애였다면

결국 결합 과정에서 이어적기를 적용하는 시대잖아요.

지금 이거 훈민정음이잖아.

그러면 이어적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왔을 가능성이 일단 있잖아요.

그러면 어우러가 댘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건 원형 자체가

이 단어로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런데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봐 봐.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졌다는 걸

모음조화 지켰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결국 최종은 뭐야?

음성이야.

그러니까 최종은 음성모음이기 때문에

음성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랑 붙는다면

그렇다면 모음조화는 지켜준 거죠.

그래서 어울위의 원형을 무엇이었나요.

이거는 고민할 거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에 5번,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자음이면

순경음 비읍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순경음 비읍도 자음이에요, 자음 기본 글자 아닌데?

기본 글자에 있는 자음 말고도

운용을 통해 만드는 자음이 병서와 연서자.

이어 적는 이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자음이라고 지정해주는 건 틀린 게 아니에요.

23번 가도록 합니다.

(가)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에서 순경음 비읍 보이고

오늘날에 없는 자음 들어가 있는 거 맞죠?

여기서도 자음이라고 딱 명칭해주는 거 보세요.

다음 2번에 ㅃ+ㅡ들에서의 이 ㅃ.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되었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선생님이 이 이야기했었습니다.

합용병서는 일단 크게 세 가지 유형이었죠.

ㅅ 계열 있고 ㅂ 계열 있고 ㅃ 계열이 있었다, 라고 했는데

이 ㅅ 계열 같은 경우에는 어두자음군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ㅅ으로 출발하는 자음의 경우는

그냥 뒤에 거 된소리로 발음하는 방식이었고

어두자음군이라고 명칭을 하는 건

그 있는 자음들을 다 발음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ㅂ이나 ㅃ 계열이

어두자음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ㅃ이기 때문에 어두자음군.

브드, 이렇게 읽었을 거로 추정이 되는 단어이고요.

3번에 보게 되면 어엿비에서의 이 종성이 ㄷ으로 발음되었다.

현대는 그렇겠죠.

현대 같은 경우에는 옷 이렇게 되어있어도

발음이야 ㅅ이 대표음 처리가 되는 거지만

중세 때의 특징 바로 뭐니까?

(가)의 ㉡을 보시면 ㄷ과 ㅅ이 다르게 발음되었다.

그리고 발음되는 받침을 표기에 반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엿비,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걸 ㄷ으로 발음했을 리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 ㄷ으로 발음을 했다면 ㄷ으로 적었어야 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4번에 보게 되면, 첫음절과 둘째 음절에 성조를 이야기했는데

하이여 부분에서 이 하이 부분에 방점 두 개 붙어 있죠?

그러면 애는 올라가는 음, 상성.

그다음은 점이 하나니까 거성으로 읽혔겠죠.

성조 다릅니다.

다음에 5번, 이 부분은 어떻게 적용돼요?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아래아가 진다고 했었던 것처럼 一로 약해서 저요.

그래서 이거 합치게 되면

ㅁ 넘어가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연철 표기법.

이어적기 표기법을 연철 표기법이라고 하죠.

24번 갑니다.

㉠부터 ㉡을 현대 국어와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부테입니다.

풀이가 나와 있는 거 보면 현대어로 부처가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분석을 해야죠.

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여기서 이거구나 찾으려면 되는 거고.

츠, 트으로 표현된 거 보니까 구개음화는 적용 안 됐구나.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 가볼게요.

고유어의 두음법칙이 적용이 되었다는 점에서 현대국어.

안 된 거잖아.

니르샤되 같은 경우에는 두음법칙이 적용이 안 된 거죠.

이거잖아요?

일단 여기서서는 쉬운 거 건드렸습니다.

뭐가? 여기에 있는 ㄴ이

두음법칙이 적용이 안 됐음을 확인하는 거고 답은 2번인데

여기 같은 경우 이 샤의 구성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죠?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석하면 니르다, 라고 하는 어간 부분에

그다음에 시, 그다음에 오대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시오대, 라고 했을 때

이게 합쳐지게 되면서 어떻게 변한다?

여기에 있는 샤로.

즉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 있는 시는

합쳐서 샤로 처리되는 거였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형태적으로 시가 있든 샤가 있든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는 사용된 거로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2번 정답.

3번 답지, 관형격 조사 부텃,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처의로 해석되는 거.

그러면 ㅅ은 관형격 조사의 기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ㅅ의 경우에는 언제 사용한다고 했었죠?

무정명사 뒤나 높임의 유정명사 뒤라고 했어요.

그중에 어떤 케이스입니까?

아무래도 높임의 대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높임의 유정명사 뒤이기 때문에 이렇게 ㅅ을 사용한 거입니다.

다음, 4번에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는 점에서는

현대 국어와 공통적이다, 라고 했는데 들으시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으시고 부분이 나왔죠?

이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으시고인데 이렇게 들어갔을 때 ㄷ이 ㄹ로 바뀌는 변화.

이러한 ㄷ이 모음 어미 앞에서 ㄹ로 변하는 불규칙적 변화는

옛날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애가 ㄹ로 변해요, 모음 앞에서.

그리고 연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드르시고가 나오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주체를 높이기 위한 거 발견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빨리 발견하면 돼요.

그다음 5번,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여기에 보면, 보좌브면이죠?

애는 원래 구성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는 보다+잡+으면.

이렇게 더해진 거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당시에는 있고 지금은 없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25번 가보죠.

㉠부터 ㉢인데 ㉠에 쌍조 | 예요.

그래놓고 1번에 보면 목적격 조사 | 래.

무슨 소리야?

여기는 주격조사죠?

보니까 딱 (쌍작)이로 현대어 풀이가 되어있고

없어도 이걸 틀리지 맙시다.

목적격 조사는 을,를 밖에 없어요.

1번 틀렸고요.

다음 2번 ㉡에 웨이니에 부분에 대한 현대 풀이가.

발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두자음군이거든.

다 발음해야 돼.

도대체 중세 때는 어떻게 발음하셨을까?

어찌 됐든 어두자음군인데 이게 둘 이상의 자음이 확인되죠?

다음 3번,

이렇게 됐어요.

현대어 풀이를 보게 되면 배복한인데.

앞에 배복을 써야 돼.

한자는 안 쓸게요.

한자어입니다.

배복 더하기 ~하다.

배복하다인데 이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뭘 발견하셔야 되냐,

이게 복종하니로 풀이되어있어요.

현대어 풀이가 복종하니.

뭘 잡아되야돼?

배복하다가 복종하다는 뜻인가보다.

그런데 여기 지금 뭐가 보이죠?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애가 뭘니까?

잡 부분에 해당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순경을 비읍이 넘어가서 만들어지는 거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 부분에 객체 높임을 사용한 건데

그러면 여기 객체가 누구예요?

지금 선생님이 답지랑 다른 이야기 하고 있어요.

답지에는 그냥 반치음, 순경을 비읍, 아래아

현대 국어에 사용하지 않는 거 사용했다는 되게 쉬운 내용인데

지금 여기 누가 객체냐는 거야.

풀이 한번 보자고요.

두 마리 독수리가 한 살에 꿰이니,

절세의 영재를 변방의 사람들이 절하며 복종하니.

그러면 복종하는 주체는 변방의 사람들이고

누구에게 복종해요?

절세의 영재에 대해 복종하는 겁니다.

즉 영재가 높여야 될 대상이니까 객체를 높여주기 위한 줍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겁니다.

(쌍작)이 한 사래라고 했는데 이어 적은 거 맞죠?

이어 적었고 이거 풀이해보면 ㉡이 이렇습니다.

보면, 사래로 되어있는 거고 현대어가 한 살이라고 했는데

화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살 한 대를 이야기하는 이 살에인데

그러면 애가 지금 보면, 풀어냈을 때는 살+애라는 거잖아요.

즉 현대 국어에서는 부사격 조사로 애는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이렇게 사용했던 건 중세 시기에

양성모음 뒤에 양성으로 시작하는 애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즉 4번에 양성모음인 ㅏ와 이 ㅑ가 어울려 쓰는 걸 보니까

모음조화가 지켜졌다, 라는 거였고.

㉠ 떨어진다의 지니 부분을 디니로 표현한 것.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6번 가보도록 하죠.

26번은 ㅎ중성체언에 대한 설명이에요.

ㅎ중성체언은 굉장히 많아요.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ㅎ중성체언은 어떠한 단어가 있을 때

애가 ㅎ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데

이 ㅎ이 다른 형태로 발현이 될 거라는 겁니다.

먼저 모음으로 시작한다.

조사로 가게 되면 ㅎ 발현됩니다.

그래서 애가 발현 여부를 따져보게 되면

발현이 되고 연음이 될 테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연음이 되면서 그다음 글자로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자음으로 시작할 때

그 자음이 ㄱ이나 ㄷ으로 시작한다면

이때 발현은 되는데 축약돼버린다는 이야기죠.

즉 ㅎ하고 ㄱ이 축약하면 ㅋ,

ㅎ하고 ㄷ이 축약되면 ㅌ으로 발현이 될 겁니다.

축약되어 ㅋ 아니면 ㅌ으로 실현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다음에 관형격 조사가 나타나면

즉 관형격 조사 중에서도 ㅓ가 있고 ㅖ이 있는데

만약에 ㅖ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ㅎ은 생략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ㅎ은 발현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보가 나왔어요.

㉠ 가보겠습니다.

나랑, 원래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애가 받침이 있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ㅎ중성체언 개념이니까.

그래서 더하기 을.

그런데 나라 자체만 쓸 때는 안 써요.

이거 쓰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애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넘어가요, 연음해.

그러면 나라흠.

이렇게 실현이 돼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 보게 되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ㅁ+ㅅ 네거리에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있는 이 ㅅ이 들어가면서

여기는 발현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 자리가 이렇게 돼줘야 되겠죠?

다음, ㉢ 보겠습니다.

㉢을 보게 되면 ㅁ.

역시 이렇게 ㅎ중성체언이라고 본 거고

그다음에 ㅁ+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ㅁ+과) ㅁ 했을 때.

그러면 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다?

ㅎ이 ㄱ이랑 만나게 되니까 축약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안과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걸 찾으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27번,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남으려고 하는 문제임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삽, 잡, 좆, 시, 그다음에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의 이, 또는 잇까지.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 번 봤으니까 안 읽어도 되겠다.

이제 밑에 있는 예문 세 가지를

현대어 풀이랑 왔다 갔다 비교해보면 될 텐데

1번 갑니다.

주체인 성자를 높이는, 땡.

현대어 풀이 보세요.

하늘이 성자를 내셨습니다.

하늘이 성자를 만들었다.

태어나게 했다.

그러면 주체는 누구죠?

하늘이죠.

성자는 대상.

즉 목적어가 되므로 애는 객체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객체는 높이려고 하는 표현이 안 나온 거야.

그런데 여기에 시를 사용함으로써 행위의 주체인 하늘을 높인 거고

또 이, ㉠입니다.

이를 통해서는 누구를 높였다?

이 이야기를 듣는 청자를 높인 거예요.

따라서 1번에 주체인 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다음 2번에 상대를 높이는 이가 사용된 건 맞고

이건 현대 국어에는 쓰이는 용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르다.

다음 3번, 객체를 높이기 위한 잡.

즉 문잡고가 여쭙고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것.

즉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잡을 사용했죠?

이것도 현대 국어와는 차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 밥을 진지로 표현하는 건

현대 국어에서 쓰나요, 안 쓰나요?

안 쓰나요?

쓰죠.

여러분, 꼭 아버지한테 밥 드세요.

그러진 않으시죠?

진지 드세요, 라고 표현하는 거 맞죠?

그러면 이 어휘를 통해서 높이는 표현 기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함께 있었구나, 라는 걸

중세의 문헌을 통해 확인했고요.

다음에 5번, ㉠과 ㉡, 주체와 상대에 대한 높임이

한 문장 내에서 내시니이다로 해서 시하고 이를 함께 사용하는 걸 통해

현대 국어에도 그러한 방식은 사용할 수가 있다.

우리는 어떤 방식이죠?

현대 풀이, 내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27번에 5번 답지인데, 옛날에는 내시니이다.

이렇게 써왔던 거.

이거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이거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즉 주체와 객체를 함께 높였던 말이야.

현대 국어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내셨습니다죠?

이거는 결국에 풀면 내시었습니다죠.

주체를 높여주기 위한 선어말 어미는 여전히 사용했고

상대를 높여주기 위한 거는 뭐예요?

어말어미로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좀 차이가 나는 건.

지금 애네, 애네 이런 건 다 선어말 어미 개념이고

현대 국어에서도 상대를 높여줄 수는 있지만

그 상대를 높이는 방법이 중세는 선어말 어미,

현대에 와서는 종결 어미로 변했다.

이 차이를 좀 찾아주시면 돼요.

그다음 28번입니다.

자료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오욕안 했을 때 오욕은으로 현대어 풀이가 대응되는 걸 보면

보조사 아래아로 되어있는 은이 있었다.

다음 2번, 누네 뎡흔 빗 보고저, 라고 할 때

눈에 좋은 빗 보고자로 풀이되는 걸 보면

눈에 좋은 빗 뒤에 목적격 조사인 을이 생략돼 있는 거죠?

뻘한 거네요.

그래서 목적어임을 알 수 있다.

3번, 귀에.

이것도 볼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귀에.

보니까 애가 풀이가 어떻게 돼 있다?

귀에로 되어있다.

그러면 부사격 조사가 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르쳐드린 적 없어요.

선생님, 부사격 조사로 예, 애.

관형격 조사로 쓰이는 의.

이런 거 막 쓰이는데 애도 있어요? 있어요.

선생님, 언제 쓰이나요?

역시 | 계열로 끝난 모음 뒤에서.

그래서 |가 뒤에 반모음 첨가 현상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귀에 하다 보니까 예가 나오는 그런 글자 형태고

이런 것도 특수한 사례이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풀어야 돼요.

보고 애랑 대응하네?

그러면 애가 뜻으로는 귀에, ~에 좋은 소리.

이렇게 했으니까 부사어 맞구나.

좋은을 꾸며주는 거구나 알 수 있잖아요.

다음에 4번, 여러분, 이 똥다가.

일단 이어 적으면 똥타, 라고 나올 텐데

애가 지금 좋다는 옛단어인 건 아시죠?

그러면 이것이 은이랑 붙었을 때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나온 거고.

이게 현대어 풀이로 좋은의 풀이가 나온 건데

그러면 이 똥흔은 똥다의 관형형이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음 5번에 먹고져, 라고 했는데 이걸 먹고자로 대응시키는 걸 보니

고전은 연결어미다.

물론 선생님, ~하고 저, ~하고자, 라고 했을 때 종결은 없죠.

그렇게 종결이 안 나오죠.

항상 지금 보게 되면 ~하고자도 먹고자 한다, 쓰고자 한다, 라고 할 때는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로써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5번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전부 다 연결어미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9번 가보죠.

1번 갑니다.

두음법칙 적용 안 됐죠?

니르샤대 부분이에요.

이거 진짜 많이 나온다.

다음 2번, 조사의 결합에서 모음조화가 지켜졌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현대어 풀이를 보면 은돈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한자어 뒤에, 그다음에 은돈+으로가 붙은 거예요.

그래야지만 양성인 ㅛ와 양성인 아래아가 붙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이어 적을 때 은도나로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2번은 모음조화자 지켜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만 있었겠어요?

이것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양성이기 때문에 음성을 쓰지 않고

이렇게 아래아를 쓰는 거로 해서 이렇게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다음 ㉔ 보시면, 이거 지금 므스게라고 써있죠?

그런데 현대어 풀이 뭐라고 되어있어요?

무엇으로 쓰였어요.

그러면 질문, 이 무엇이라고 하는 단어의 옛 표기는 뭐였을까요?

당시에 이어적기 했다는 걸 전제한다면 아시죠?

므스국이었던 거죠.

그리고 더하기 예.

음성, 음성.

그러니까 이어 적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 므스국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어찌 됐든 3번은 이어 적었다, 라는 것만은 확실한 거고요.

㉔ 부분에 보게 되면 ㅂ 계열 합용병서.

즉 가로로 나란히 쓰는 방식.

그다음에 ㉕ 부분에 보게 되면 이거 땡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이거는 동국정운식 표기법이기 때문에 받침에 있는 ㅇ은 음가가 없어요.

그냥 읽을 때 돼똥하샤대야.

그러면 하샤가 나왔으니까 이거 뭐라고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따라서 5번은 틀렸죠?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아닙니다.

30 가보도록 하죠.

역시나 1번 낚으려고 합니다.

왕이 니르샤대 대사 하산 일 아니면

하산, 샤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한 주체야?

대사가 주체죠.

그러니까 1번은 왕이라고 헛갈리면 안 돼요.

이 대사가 하신 일.

2번 갑니다.

㉔에서의 이, 선인에서의 이와

그다음 ㉔에서의 연화 | 에서의 | 는

격조사의 종류가 달라서 서로 다른 형태다.

우리 이랑 그냥 모음만 있는 ㅣ는 받침이 있고 없고에 따라 결정되는 거지
기능이 다른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주격 조사의 기능으로 쓰인 건 맞습니다.

문장 봐도 선인이 살브대, 선인이 아되되,

그다음에 연화ㅣ 나나니이다.

연꽃이 납니다.

다 주어네.

그래서 2번은 왜 틀렸다?

격조사의 종류는 같다는 겁니다.

다 주격 조사.

다음 3번은 시이 남굴이라고 하는 무정명사 뒤에서
관형격으로 쓰인 걸 알 수 있다.

남굴의 선인 부분이니까.

㉠ 부분에는 ㉡하고 ㉢을 보게 되면

세간애, 그다음에 시절애.

이렇게 붙는 걸 보니까 양성, 음성 조화시켜줬습니다.

마지막 5번에 구개음화 안 된 거 발견할 수 있고요.

31번 가겠습니다.

1번, 하늘+ㅅ.

하늘의 별이라고 했는데 의의 기능을 할 때는

ㅅ을 사용한 관형격 조사.

무정명사이기 때문이었죠?

다음 2번,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지금 왕이 부처를 청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청하는 주체는 왕이지만 누구를 청한다고 했어요?

부처라고 하는 높은 대상이죠?

그걸 높이기 위해서 삼을 사용함을 알 수 있어요.

다음에 (다)에 보게 되면 아라보리로소니잇가 엄청 기네.

어머님을 아라보리로소니이까.

왜 이렇게 해매냐.

굉장히 길어요.

지금 알아보겠습니까, 라는 풀이인데

우리가 확인해줘야 되는 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잇보입니까?

그러면 잇이라는 건 뭐예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사용한 거예요.

이걸 듣는 사람을 높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로 끝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풀이 보면 알아보겠냐, 라고 물어보면

예, 아니오로 대답하게 되는 판정 의문문이거든요.

그때는 아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3번에 판정 의문문에 아 계열 의문문이다.

이거 이야기해줬고요.

그다음에 (라)에 보게 되면 내 이를 위하여의 풀이가

내가 이를 위하여야.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이 내 이를 위하여 부분이

내가 이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가'자리가 지금 뭐로 실현된 거라고 봐야 돼요?

목음의 형태로 실현된 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주격조사 이가 쓰였다.

선생님, 틀렸어요.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한번 해 봐.

지금 여기에 내가 현대어 풀이로 이게 되어있어요.

내가, 라고 풀이되어있어요.

다시 한번 적용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어차피 여기에 있는 이 ㅏ도

당시에는 이중모음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나+ㅣ, 이렇게 읽었던 말이야.

그러면 ㅣ반모음으로 끝난 건 맞아요.

그러면 애가 지금 가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이거의 구성은 내+목음 주격 조사다.

생각하고 4번을 봤더니 주격 조사 이가 쓰였다.

틀렸네?

아니거든? 맞거든?

지금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애는 이게 아니라 받침 없는 나+ㅣ 였던 거예요.

그런데 현대는 나가, 라고 안 하고

아예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가 이건데 이게 워낙 고정되다 보니까

마치 가 앞에서는 이게 쓰여버리는 그런 변화가 생긴 것이지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내는 나+ㅣ로 구성이 된 거고

주격 조사는 ㅣ가 쓰인 게 맞아요.

이러한 변화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나 공부할 수 있어요.

누구라고 하는 어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라고 하는 과정이

이러한 비슷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붙여 쓰던 것이 한 단어가 고착화돼버리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다음 가볼게요.

4번만 잘 피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혹여 고민됐다 할지라도

5번을 보고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물 미퇴, 라고 했는데 미퇴라고 하는 건

높이지 않는 유정명사가 아니라 그냥 무정 명사, 밑.

그래서 무정명사 뒤에 결합되는 의가 쓰인 것이다.

아, 관형격도 아니네.

풀이가 어떻게 돼 있어요?

관형격이 무정 명사 뒤에 의가 쓰일 리가 없잖아.

이렇게 되어 있죠?

현대어 풀이 어떻게? 밑에야.

관형격 아니라 뭐가 된 거죠? 부사격이죠.

그러니까 애는 밑+의.

이 의가 역할은 지금 여기서는 부사격.

그러니까 순간 헛갈릴 때가 있다니까요.

항상 관형격 아니에요, 부사격으로 쓰일 때 있습니다.

32번 가보도록 할게요.

보기에 중세 국어 자료 탐구.

보기에 중세 국어 두시언해 중에 한 부분.

현대어 풀이 나와 있고요.

1번, 답이죠.

이어적기 했죠?

이거 되게 쉽네요.

다음 2번에 보게 되면 방점 쓰인 것.

3번에 합용병서 쓰인 것.

4번, 5번, 쉽다.

넘어갑시다.

1학년 수준인데, 이 정도면?

33번 어려웠어요.

수능 문제였고요.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 맞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문제에서 우선은 자동사와 타동사에 쓰임을 확인해보자고 이야기했어.

그런데 ㉠나 ㉡는, 보세요.

㉠에 중세 국어 예문으로 큰 마자말 여러.

또 밑에 예문으로 자연히 마자미 여러.

그래서 여러 똑같은 모양으로 밑줄이 두 개 쳐져 있어요.

그런데 현대어 풀이를 보면 큰 마음을 열어.

자연히 마음이 열리어.

무슨 이야기냐, 33번은 뭘 발견하라는 이야기냐면,

㉠에서 열다, 라는 단어가 현대어 풀이를 해봤더니

위쪽에서는 열다로 쓰였고 밑에서는 열리다로 쓰였다는 거야.

그런데 자동사나 타동사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열다는 무엇을 열다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고

애는 무엇이 열리다면 끝나는 거고.

즉 중세 때 열다가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걸 보면

중세 때의 열다는 타동사로도 쓰이고 자동사로도 쓰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현대 국어의 열다는 어쩌냐,

현대 국어에 열다는 지문에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현대인이니까 열다의 자릿수를 생각해, 라고 던진 거였어.

그런데 여러분이 현대 국어에서의 열다도 이 열다를 풀이해주는

이 부분을 보고 막 헤매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였어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㉞도 똑같지 않습니까?

㉞도 흠다, 라는 단어가 첫 번째 예문에는 구르믈 흐터.

타동사로 쓰이는 거죠?

밑에 예문은 산심은 흠어진 마음이다.

그러면 마음이 흠어지다니까

애는 주어만 있으면 되는 목적어 없어도 되는 자동사였단 말이죠.

즉 ㉞는 흠다, 라는 단어가 중세 때에는 자동사, 타동사 모두 쓰였다는 거야.

이제 열다나 흠다는 현대 국어에는 어떻게 사용돼요?

무엇을 열다죠?

무엇이 열다 아니죠.

선생님, 무엇이 열다 되잖아요.

철수가 연다.

생략한 거지.

철수가 연다 하면 목적어 있어야 되잖아.

철수가 문을 연다.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에서 생략한다고 없는 자릿수는 아니잖아요.

자릿수 몰라요?

그래서 서술어의 자릿수는 필수적인 성분들을 이야기해.

그러니까 현대 국어에서의 열다는 주어와 목적어가 필요해요.

타동사로만 쓰여요.

흘다는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흘다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흘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써야 된다?

열다나 흘다는 현대 국어에선 타동사로만 쓰인다.

즉 3번, 중세 국어 열다, 흘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흘다는 타동사로만 쓰인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몰라서 헤매던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엄청 많이 틀렸어, 이것도.

그런데 대응이 되잖아.

이제 문제의 의도가 이런 방식이면 뭘 의도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을 통해 대응이 될 거예요.

다음, 우리가 주격 조사가 이, 그리고 ㅣ, 그다음 목음.

이렇게 있었던 거 풀이할 때 선생님이 중세 국어 공부하면서 설명했어요.

이거는 사실 보격조사 쪽이나

서술격 조사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서술격 조사가 -이다가 있죠, 현대 국어에는.

그런데 이게 중세 때는 어떻게 쓰였냐?

-이라 형태로 쓰여요, 기본형이.

그런데 이 이라도 역시 종류가 있어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원리는 주격 조사의 환경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침이 있는 것 뒤에 이라,

받침이 없는 것 뒤에 이라,

받침이 없는 것 중에서 ㅣ 반모음으로 끝나거나 이로 끝나는 것 뒤에는

목음 끝나고 라.

이렇게 간다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적용되는 예문 보시면,

치는 이이다.

소는 바이다.

다음 누는 다락이다.

뭘 넣어줘야 되는지 알겠죠?

애는 목음이라. 애는 받침 없으니까 이렇게.

애는 받침 있으니까 이렇게.

결과물은? 이라.

결과물은? 배라가 나와야죠?

결과물은? 연음되니까 다라기라.

찾으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 하나 다르죠.

뭐가 달라요?

이라고 하는 거는 두음법칙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ㄴ으로 표기된 거.

이것만 차이가 난 것뿐이죠.

붙는 공식은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답 골라내시면 되겠고요.

35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 탐구 역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에 ㅅ, 나랏말싸미 했을 때 나라의 말싸미 할 때 말이죠?

이것도 제가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께서

이 말싸미 부분을 해석할 때 나라의 말이잖아요, 현대 풀이하면.

그런데 나라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해주셨대요.

그런데 제가 친구한테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이라는 어휘의 옛 단어가 '말'이야.

선생님께서 여기 ㅅ이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라고 풀이를 해줘야 된다고 했대요.

ㅅ은 앞에 나오는 체언이 높임의 유정명사일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라는 높임이 유정명사가 아니잖아요, 이 선생님아.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내신 문제는 선생님의 말이 그냥 무조건 맞아.

그냥 그렇게 밀고 가야죠.

되게 억울하지 않아?

그런데 어쨌든 1번 답지는

여기서는 시의 의에 해당하는 관형격 조사고

풀이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말어로 풀이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 2번 갑니다.

고쳐는 현대 국어의 고자로 연결되는 현대어 풀이 맞고요.

다음 3번에 | 는 주격 조사로 모음에 끝나는 체언.

다 다른 내용이다.

4번도 쉽다.

5번,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결합했음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 뒤에 붙었는데요? 모음 뒤에 붙었죠?

36번 가겠습니다.

보기 1의 중세 국어의 특징 바탕으로 ㉠부터 ㉣까지 탐구해봅시다.

먼저 1번 답지, 나라노 ㉡, 잇나녀에서 ㉢을 확인한다.

㉢은 설명과 판정 의문문의 종결어미가 다르다고 했거든요.

㉠를 보게 되면 으슴 마를, 으슴 밀줄.

의문사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설명 의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형을 선택했습니다.

뇨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에는 젊으며 늙음이 있느냐, 라고 하면

있다 없다를 대답해야 되는 판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판정 의문문에 아형태인데

선생님 이거 녀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아나 어나 녀나 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 어, 여 이쪽 다 같은 계열이고

오, 요 이거 다 같은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모음이 아래쪽에 붙어있느냐,

오른쪽에 붙어있느냐의 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꼭 아, 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 같은 경우에는 오 계열이에요.

뇨가 오 계열이고.

㉡는 녀가 나오는 게 아 계열이에요.

그래서 ㉠가 설명, ㉡가 판정이고

그래서 1번에서 ㉠을 확인할 수 있음은 맞습니다.

다음 2번에 마를과 벼를 부분인데,

㉠ 부분에는 말+을 붙은 거고

그다음에 ㉡ 같은 경우에는 벼+를이 붙은 거죠.

그래서 체언에 결합하는 조사의 형태는 모음 조화.

양성 뒤에 양성, 음성 뒤에 음성 붙은 거 이야기한 거고요.

다음에 3번에 ㉢ 하 기억하시죠?

호격조사인데 높임의 호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세존하, 라고 부르고 세존이시여로 풀이가 되는 거.

그다음에 4번에 보게 되면 이런 것도 재미있어.

뭐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풀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더 계열은 과거 계열이죠?

과거 선어말 어미고 이 시가 높임 선어말 어미.

그래서 높임이 시제보다 앞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중세 때는 어떻게 잡혀 있어요?

보더시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순서가 뒤집혀서 실현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세 때는 과거 선어말이 먼저 나오고

높임 선어말이 뒤에 나오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5번이 틀렸네요.

듣는 이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는 이나 있어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는 짧이 나왔기 때문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실현됩니다.

다음 37번 가보도록 하죠.

(가)에 들어갈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먼저 1번에 다리나 비취요미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도 좀 보세요.

현대어 풀이는 달이.

현대어 풀이는 비침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쉬워요.

이렇게 지금 풀이가 되어 있는 걸 보고

다리의 ㅣ, 비취요미의 ㅣ는 주격과 부사격이다.

이거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ㅣ가 쓰였던 거 주격,

여기에 ㅣ가 쓰였던 건 부사격이다, 라는 걸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ㅣ가 쓰인 건 맞아요, 라고 물어볼까 봐 그래서 나눠보면

애는 풀이하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달+이죠?

그래서 이어적기 때문에 이 형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애를 잘 볼게요.

애는 어떻게 되냐, 비취다에서의 어간인 비취예요.

더하기 원래 명사형이니까 비취다에 ㅁ 붙은 것처럼

여기도 명사형이 필요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야?

움하고 움이죠.

그런데 움/움 붙었겠어?

안 붙죠.

뭐가 붙은 거예요?

움 붙은 거예요.

선생님, 움/움만 있는 거 아니에요?

움도 있고 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상황인데, 대충 느낌 옳니까?

여기 움 왜 왔겠어.

역시 ㅣ 반모음으로 끝나서 그래요.

그러면 ㅣ 반모음 첨가되는 현상으로 이음, 이렇게 불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움이 와요.

그리고 더하기 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어적기 하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어쨌든 이때의 이는 과요, 이때의 이는 주격 조사 이로 쓰인 것이다.

풀이는 되죠?

다음 2번 갑니다.

㉠에 네, 이것도 그래.

이것도 이거랑 똑같아요.

지금 이거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풀이는 어떻게 되냐면, 네가야.

그러면 역시 이걸 오해하면 여러분이 이미 네가 옛날에 완성이 되었고

여기에 목음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냐면,

너+ㅣ가 붙은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형성이 된 거.

이 구조랑 똑같아요, 여러분.

보이지죠?

그래서 2번에 네에서의 ㅣ는 주격 조사로 쓰인 거고

다음에 부테 같은 경우는 이가 보격 조사.

왜냐하면 ㉠의 풀이를 보시면,

네가 후에 부처가 되어예요.

서술어가 되다가 나왔잖아.

그러면 되다 서술어는 주어랑 보어를 요구하고

그 보어 자리어 부처가 탁 튀어나왔죠.

그래서 2번 설명 좋아요.

3번에 부텃 또는 가짓 풀이를 보면

부처의 여러 가지의고가 나오죠.

관형격 기능 맞습니다.

다음 4번에 ㉡에 사사미, 그리고 도자기라고 했을 때

일단 아래아 ㅡ가 사용됐다는 건 형태로 보였는데

각각 기준 조건이라고 했거든요.

풀이 볼까요?

사슴의 등, 사슴이 기준이야?

도적의 입과 눈.

도적이 조건이야?

이게 아니잖아.

이거는 그냥 소유물.

소속된 것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 기능 의예요.

4번 설명이 잘못됐어.

다음에 5번에 보게 되면 모뎀하고 부터를 부분이니까

여기는 부터 더하기 곧바로 를 쓴 거고

애는 몸에 이어적기 하느라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양성, 음성으로 형태가 다른

목적격 조사가 사용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38번입니다.

㉠에서 객체 높임 대상을 찾으라고 했죠?

풀이 보면 되겠네요.

왕이 부처께 더욱 공경하고 믿는 마음을 내어.

행위의 주체는 왕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한다는 이야기죠?

부처에게 한대요.

그래서 부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실현된다고요.

이거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받침으로 내려와 있죠?

그래서 결과물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원래는 끼예요.

이게 우리가 현대 국어에서 쓰이는 ~께, 라고 하는 높이랑 같은 기능입니다.

이것도 쓰였는데 이걸 언급은 안 했고

지금 내좌좌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왕이 부터그 더욱 경신한 마자물 내좌좌라고 할 때 이 부분이죠?

그러면 줍이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객체를 높이기 위한 기능이었고 이때의 대상은 부처니까

3번 아니면 4번이겠죠.

다음 ㉡입니다.

이번에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결합했을 때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될 거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듣다, 라고 하는 용언의 어간에 ㄷ 받침이기 때문에
보기에 보면 이걸 미리 외울 필요는 없거든요.

선생님, 이거 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외워도 돼요.

이거는 보기 무조건 줘요.

그래서 어렵지 않잖아요.

㉔ 받침 뒤에는 잡 쓴다면서요.

나오네.

그리고 뒤에 으며를 붙이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8번까지 우리는 마무리를 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이렇게 왔네요.

종합형 문제인데 이 종합형 문제 80% 이상이

옛말 문법하고 현대 문법하고의 종합이에요.

그래서 결국 옛말 문법은 좀 한 번 더 공부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

최근에 나온 문제의 구성이기 때문에

더 복잡한 구성일 거라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겁먹지 마세요.

왜? 우리가 지난 시간, 이번 시간 공부하면서

좀 많은 부분 복습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풀어주시고 마지막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